

# 대한민국 공연예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다

●유희성 연출가 '유희성의 무대 읽기 더 스테이지' 출간



깊숙한 연출가이자 연극과 뮤지컬의 오래된 팬인 유희성(사진)의 공연 후기 모음집 '유희성의 무대 읽기 더 스테이지' (연극과인간)가 출간됐다. 공연을 사랑하는 유희성의 마음이 가득 실린 이 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연된 무대를 보여준다.

공연에 대한 열망·빛나는 투혼으로  
2009년부터 총 200편 공연 후기 수록  
연극·뮤지컬·무용·창극·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 다채로운 즐거움 가득



유희성 연출가가 예술감독을 맡은 '뮤지컬 광주'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15년 동안 꾸준히 공연을 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공연마다 후기를 쓰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의 무대 후기들을 읽다 보면 독자들은 그가 얼마나 공연과 무대를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책의 목차는 2009년부터 2013년,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부터 2019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나뉘며 총 200개의 공연 후기를 실고 있다.  
그동안 유 연출가는 오랫동안 공연예술계에 몸담아오며 다양한 공연을 보거나 창·제작 등으로 여러 장르에서 직간접적으로 간여해왔다. 또한 그는 다양한 은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칼럼과 리뷰를 기고해왔다.  
이 책은 연극이나 뮤지컬 뿐만 아니라 무용, 창극,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장르를 관극 후 칼럼 형식으로 담아낸 결과물이다. 유 연출가는 이 책을 통해 작품의 좋고 그름을 평가하거나 논하기보다는 작품을 소개하고,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창·제작자와 배우들을 격려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 길라잡이 역할과 더불어 작품의 흥보나 마케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그는 "공연 관계자나 독자들이 미처 관극하지 못했던 공연 후기를 읽어 볼 기회가 될 것이다"며 "지난 공연 작품들에 대한 이해와 그 작품에 대한 기억의 소환으로, 작거나 공연예술계의 성장과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유 연출가는 이 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안 전관리 및 특유의 예방과 조치로 공연을 지속한 당시 관객의 환경,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작진 및 관객들의 지혜롭고 선행적인 정서를 높이 산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의 많은 관계자들은 저마다 공연에 대한 열망과 빛나는 투혼으로 오늘도 새롭게 정진하고 있다"며 "세계가 놀라워 할 정도로 K-컬처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창·제작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으로 양으로 정진하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많은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더 깊고 넓은 문화예술의 향기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책에 담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희성 연출가는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예술학전공 석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광주교대 대학협력관,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예술단 상임 이사장,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서울시뮤지컬 단장, 동시대 뮤지컬과 부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기과·뮤지컬과, 서울예술단, 광주시립극단 소속이었다. 논문으로는 '한국 창작뮤지컬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최명진기자

## 사라지는 직업의 고통·욕망·색깔·냄새·맛을 기록하다

한승태 작가 '어떤 동사의 멸종' 출간

AI 기술 발달로 지금 세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한다. 당연히 모든 발전에는 대가가 따른다. 산업혁명 덕분에 인류의 생산력은 높아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방직기계에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19세기 초 절박한 현실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 파괴 운동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한다.  
'인간의 노동'이라는 카메라를 통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낸, 사라져가는 직업들의 비망록이 발간됐다. 한승태 작가의 '어떤 동사의 멸종' (시대의창)이다.  
작가는 자신의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한다. 그

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직업 가운데 넷을 골라 그 직업들의 '비망록'을 남긴다.  
책에는 각 부 머리말에 각 직업의 대체확률을 표기했다. 작가가 왜 네 직업(콜센터 상담, 택배 상자, 뷔페식당 주방, 빌딩 청소)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자 여러 기관과 대학이 예측한 각 직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본문에는 그 밖의 다른 직업을 언급한 부분에 대체확률을 표기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작가가 선택한 직업 외에도 책 속 '사작하며' 섹션에서는 '소개하다'라는 동사를 '소개'한다. 바로 '직업소개소' 이야기다. 어느덧 주변에서 많이 사라진 직업소개소는 한때 전국에 걸쳐 수많은 일자리와 노동자를 연결해 준 곳이다. 작가

역시 직업소개소를 통해 수많은 일 자리를 소개받았다. 그 최근의 쓸쓸한 풍경을 책머리에 놓았다.  
'마무리하며'에는 '쓰다'라는 동사의 의미하는 '작가'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 책은 르포르타주이지만, '마무리하며'는 작가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논픽션에 작가적 상상이 결합된 글이다. 작가의 개인사와 문학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부분이다.  
작가는 서문을 통해 "인간에게는 특정한 노동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희로애락이 있다. 그 노동의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고통과 욕망을 그것들의 색깔, 냄새, 맛까지 전부 기록하고 싶다"며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계 수단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 성장하고 완성해 가던 특정한 종류의 인간 역시 사라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명진기자

### 새로운 책



▲무엇도 아닌 모양으로=김지원 저자  
마감이 있으면 프리랜서, 마감이 없으면 백수가 되는 불안정한 생활에 복잡한 심정이 된 저자는 이리저리 부유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보기로 한다. 그렇게 '수많은 꿈에서 돌아오는 길에 쓴 일기 같은 것들'을 이 책 '무엇도 아닌 모양으로'에 담았다. 세상이 정한 무엇이 되는 대신 '형태 없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은 무엇도 아닐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대하는 김지원의 창작 태도와 닮았다. 그는 형태가 없는 것들을 떠올리며 조금씩 불안을 지워 나간다. /카멜레온·1만8천500원



▲설탕 증독=대릴 지오프리 지음, 이문영 옮김  
'혈당'이 온 국민의 건강 키워드로 떠올랐다. 일찌감치 건강 관리 중요성에 눈을 뜬 20·3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저속 노화' 식단도 액상과당 같은 단순당과 밀가루, 흰 쌀밥 등 정제 곡물을 피해 혈당 급증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해로운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설탕을 못 끊을까. 이미 설탕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심각한 설탕 증독자였지만 술 한 시행착오 끝 마침내 평생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냈다. 자신이 몸소 터득한 방법을 적용해 20년간 12만 명이 설탕을 끊고 건강을 되찾도록 도왔다. 그 비결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부기·1만8천원



▲상식의 독재=한윤형 저자  
'상식'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한쪽 눈을 감은 채 다른 한쪽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혐오하고 있다. 여기, '곧 망할 나라'에서 그 나라를 분석한다는 것의 의미를 진득히 해독하는 책이 출간됐다. 우리 사회의 좌표를 찾는 일에 매진 해온 논객 한윤형이 갖 버린 칼날 같은 단독 저서로 7년 만에 돌아왔다. 특유의 번쩍이는 통찰력과 강기를 무기 삼아 중형무늬 텍스트를 누비며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우리 삶의 풍경은 어떠한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묻고 답한다. 두터운 탐구 여정을 앞에 두고, 저자는 '상식의 독재'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생각의힘·2만2천원



▲남남=백은유 글, joggen 그림  
청소년 독자들에게 다정하고도 단단한 마음들을 전해왔던 백은유가 풋풋한 여름날의 사랑 이야기로 찾아왔다. '남남'은 모범작이 열정적인 베테랑 회장 '채원'이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서우'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그 애의 눈동자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그 애가 맛있는 걸 많이 먹길 바라는 애뜻한 마음이 생생한 묘사를 통해 읽는 이에게 전해진다. 일러스트레이터 joggen의 명랑하고 생기 넘치는 그림 또한 두 아이가 서 있는 여름날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책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그림은 독서 경험에 몰입감과 재미를 더한다. /창비·1만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b>시내 지역</b>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b>지방 지사</b>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시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묘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